



제24회 흥부제가 지난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3일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우애·나눔' 흥부제, 막 내리다

다양한 체험·수준 높은 공연 등 펼쳐져 관광객·시민들로부터 호평

제24회 흥부제가 지난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3일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 흥부제는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2016무형유산도시 선정상을 기념해 다양한 한마당 행사를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제24회 흥부제는 지난 7일 흥부제의 배경지인 인월과 아영에서 고구려와 흥부마을 터울립을 시작했다. 사람의 광장에서는 4개 분야 19종목의 다양한 나눔 체험과 수준 높은 공연 등이 펼쳐져 관광객과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7일 가을비 속에서 열린 개막공연에는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준비한 뮤지컬 흥부와 놀부 공연이 펼쳐져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제22회 시민의 날 기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고

광길씨 등 4명의 시민에게 남원 시민의 장을 수여했다. 흥부정신을 기리는 흥부가족상은 6자녀를 키우며 홀로된 고향의 아버지를 지극 정성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오충권씨 가족이 선정됐다. 이어 흥부전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와 시립국악단의 아름다운 퓨전국악이 연주되었다. 시립합창단의 시민의 노래 합창과 불꽃놀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되었다. 춘향테마파크에서는 초, 중, 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흥부와 놀부 상징 그림그리기 대회, 합파우 소리체험관에서는 흥부전을 소재로 한 백일장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남원의 대표적 전통문화인 읍면동 농악단의 '흥부풀 남원농악 경연대회'와 국립무형유산원의 삼동굿놀이, 당진시의 기지시 줄다리기, 무형

문화재들의 '생명의 땅, 무형의 꽃' 기획공연이 펼쳐져 우리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는 전통문화와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흥부할아버지의 정신을 실천하는 현행 나눔행사도 열렸다. 현행 나눔행사에는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들이 참여 흥부의 나눔정신을 실천했다. 사회단체들 모여 재활용품터와 프리마켓, 버스킹 공연이 어우러진 문화나눔장터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나눔장터 판매수익금의 10%는 관내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제24회 흥부제는 나눔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축제로 승화시켜 명실상부한 남원의 또 하나의 대표 나눔·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가을엔 맛있는 치즈' 임실N치즈축제 대단원

약 21만명 관광객들로 인산인해... 6개 분야 총63개 프로그램 진행

임실N치즈축제제전위원회가 주관하고 임실군이 주최하는 '2016 제2회 임실N치즈축제'가 약 21만명의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성대하게 마무리 됐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열린 이번 축제는 화창한 가을을 맞아 방문한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번 축제는 '임실N치즈 사랑한다' 말하고 임실 한우 맛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6개 분야 총63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첫째날인 6일은 20개국 40여명의 외교사절단이 참여한 치즈체험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군민의 장 수상자 시상과 '제6회 최갑석 가요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7일에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들의 '한마음 축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35사단 군악대 퍼레이드', 필봉농악의 '필봉투 종병이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이 진행됐다. 8일에는 '북면가람! 청소년 뮤지컬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아침만만 가을 뮤지컬 페스타', '1967! 치즈떡볶이 나눔행사', '1967! 토끼어린 피자만들기', '가족대항! 짬뽕 놀~려 내 치즈'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과 경찰의 장대 시범공연, 가족 한마음 스토리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도 마련됐다. 축제 마지막 날인 9일은 임실 치즈의 아버지 지정환 신부가 지난 8일에 이어 축제장을 방문해 방문객들과 화

합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제2회 임실 성수산 왕의 숲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전국어린이 창작동요대회', '최현석 셰프와 함께 하는 스타셰프 웰빙대회', '박명수 팬 사인회'에 이어 폐막식을 끝으로 '제3회 임실N치즈 축제'를 기약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축제는 형형색색의 국화 3만본(천만송이)이 전시돼 유럽풍의 건물과 어우러져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청정임실에서 지란 압소 한우 고기와 음식 품평회를 거쳐 출사된 각 읍면 생활개선회의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돼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모양성제, 성문 닫다... '내년에 또 열어요'

'역사는 미래다' 주제로 다채로운 전통문화체험과 풍성한 먹거리 제공

고창군의 대표 역사·문화 축제가자 문화관광 유망축제인 '제43회 고창모양성제'가 '역사는 미래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전통문화체험과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군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 속에 5일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이번 '고창 모양성제'는 축제 기간 동안 군민과 관광객 등 약 15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문화를 보존 전승하고 축제 방문객들의 참여를 높인 고창군 대표 축제로 그 위상과 정체성을 재확인 하는 시간이 됐다. '고창 모양성제'는 지난해부터 기념식을 없애고 축제 기간 각종 행사의

의전을 간소화하며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군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치러져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고창 모양성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는 주민과 관광객 1000여명이 한복을 곁게 차려 입고 성곽을 아름답게 수놓았으며 주·야간 2회 진행된 강강술래는 물론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서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 개최된 '제1회 고창모양성제 강강술래 경연대회'는 고창지역 농협과 군민들이 팀을 이뤄 전통 강강술래와 이를 현대화한 춤 동작을 선보이며 아름다운 볼거리를 연

출했고 경연결과 고창농협팀이 대상을 차지해 상금 300만원을, 선운산농협팀이 최우수상으로 상금 200만원을, 대성농협팀이 우수상으로 상금 150만원을 수상했다. 또한 이번 축제에서는 먹거리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고창의 대표적 특산물인 풍천장어와 북분지주 등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고 지역 주민들이 입점한 먹거리장터 음식 또한 고창의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여 고창의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고창 특산물 판매·홍보 부스를 확대 운영해 오감이 즐거운 축제로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 성수산 전국 산악 자전거대회

10대 부터 70대 노인까지 전 연령층 다양하게 참여

임실군은 9일 고려와 조선의 개국설화가 서려 있는 성수산 일원에서 '제2회 임실 성수산 왕의 숲 전국 산악 자전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민생활체육 전북자전거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선수 및 관광객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대 젊은 남녀는 물론 10대 청소년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소통과 화합의 축제의 장이 되었다. 특히, 이번 자전거대회는 군청을 출발해 천혜의 자연경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성수산 자연휴양림~성수산 정상~도인저수지를 거쳐 군청에 도착하는 55km에 이르는 구간으로 산악자전거 코스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참가 선수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심민 군수는 "성수산 왕의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임도에 애기 단풍과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명실상부한 산악 자전거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서울 청소년 문화교류활동

고창 지역 내 중학생 70여명이 서울 시내 일원에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2016 고창-서울 청소년 문화교류활동'에 참여했다. 고창군과 서울시간의 우호협약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교류행사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이 주관했으며 지역 간 청소년 상호방문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폭넓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청소년들은 첫날 망우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조별 멘토들과 인사를 나누고 전체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으며, 저녁에는 한강유람선에 탑승해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다. '프로듀서-서울'이란 주제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둘째 날에는 총 8개의 조가 추첨을 통해 1호선에서 9호선 중 각각 지하철 노선을 선정하고 자유여행을 직접 기획한 후 동영상으로 만드는 미션으로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주제를 정해 지하철을 이용 명동, 대학로, 이태원, 경복궁 등 서울시내 명

소를 탐방하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3분내외의 영상물을 만든 후 저녁에는 흥대 앞에서 연극을 관람했다. 마지막 날인 셋째 날은 전남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물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서울시들이 조별로 인사동과 광화문 등 서울시내 거리로 나와 길거리 홍보를 진행해 많은 댓글과 조회 수를 받은 조에게는 선물이 제공됐다. 행사에 참여한 반진후(고창남중 3) 학생은 "직접 여행을 기획하고 영상도 찍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도 얻게 됐으며 서울을 보다 자세히 알고 알차게 즐기고 가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활동 이후로 고창군이 초대한 서울시 청소년 40여명이 올 11월초에 고창에 방문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타 도시와의 교류사업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자신감과 역량을 키워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농기센터, 새로운 미꾸리 생산 기술 개발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에서는 2007년도부터 미꾸리 인공종묘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를 추진해왔고 그동안 2010년에 연간 100만마의 인공부화치어 생산력을 확보 하였으며 2014년까지 연간 최대 생산력 350만마의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는 m당 3,000마수 수준의 생산력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확보하고 있는 수면적과 예산투입에 비해 그 생산량과 효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2015년도부터 인공종묘 생산기술의 전방적인 체계

를 변화시키기 위해 과감한 연구와 기술도입을 단행 하였으며, 이러한 열정이 반영되어 6가지의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응용도입 하는데 성공하였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m당 평균 9,000마수 수준의 생산력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생산력 1,000만마 이상의 생산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2016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종료되어 기존의 절반의 예산과 인력만으로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으며, 매년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남원=유영철 기자

재부산 임실군향우회, 고향장학재단 장학금 기부

200만원 전달

향우회원들의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10년 넘게 고향장학재단의 장학금 기부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미담이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임실N치즈 축제기간에 고향을 방문한 재부산 임실군향우회 정철영 현(現)회장과 재부산 임실군향우회장을 역임한 정인옥 교문은

지난 7일 각 1백만원씩 총 2백만원의 장학금을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이사장(심민 임실군수)에게 전달했다. 한편, 재부산 임실군향우회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임실군 출신 향우회원으로 구성된 모임으로서, 지난 십여년간 총 1천만원의 장학금을 꾸준히 기부하여 변함없는 고향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문화특집

고창군민의 날 행사 성료

고창군민들의 화합의 한마당인 '제55회 고창군민의 날'과 '제35회 고창군민체육대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지난 9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군민의 날'과 '군민체육대회'는 박우정 고창군수와 최인규 군의장, 유성열·백재현 국회의원, 이호근·장명식 도의원, 군의원과 기관사회단체장, 군민과 재외군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했다. 식전행사로 국악예술단의 대금공연, 해리면 농악단의 농악공연 등이 마련돼 흥을 돋웠으며 축구, 족구, 장년마라톤, 단체줄넘기,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경기가 진행됐다. 이날 고창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고향발전을 위해 노력해 군민의 장을 수상한 문화체육관광 오희성, 공익장 박종은, 애향장 백재현, 효열장 최병열씨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개최됐다. 또한 고창을 전국에 널리 알리면서 소중한 인연을 맺은 tvN '삼시세끼'의 나영석 PD와 해피트리 이인석 대표에게 명예 군민증 수여도 진행됐다. '군민체육대회' 결과 아산면이 1위를, 심원면이 2위, 공음면이 3위를 차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명품농업대학, 장만들기 실습

사먹는 밥이 아닌 집밥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을 리면들이기보다 쉬운 전통 장만들기라는 주제로 흥미를 높이는 교육이 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에서는 '남원명품농업대학'이라는 이름으로 10개월 전문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교육과정의 특용작물, 귀농인, 복숭아, 농식품 4개반과정 중 농식품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신대 고은정 강사(맛있는부엌 대표)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8월 18일에 시작하여 10월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전통장류 교육으로 내손으로 장 담그기, 고추장, 막장 만들기를 비롯하여 전통발효장 식단체험 등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내실있는 실습교육으로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명품농업대학 농식품반 교육은 6차 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가공기술, 경영, 마케팅 등 종합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1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장류축제, 무료셔틀택시 운행

오는 13일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서 막을 여는 제11회 순창장류축제는 무료셔틀택시 운행으로 관광객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순창군은 지난해부터 운영해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무료 셔틀택시를 올해 더욱 확대하고 축제장 주무대에서 발효소스도굴과 장류체험관 등이 위치한 민속마을 상부를 오가는 관광전용 전기차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무료셔틀택시는 축제기간인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된다. 하루 12대의 셔틀택시가 순환 운행되며 장류축제를 찾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 이용할 수 있다. 1코스는 순창읍사무소에서 우체국 맞은편 순창여중-청소년센터를 거쳐 민속마을로 가는 코스고, 2코스는 순창읍사무소에서-주공아파트-군청-청소년센터를 거쳐 민속마을에 도달하는 코스다. 청소년센터와 민속마을을 오가는 3코스도 운영된다. 군은 무료셔틀버스 확대 운영으로 순창읍내에서 축제행사장인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을 오가는 불편이 해소돼 성공적 축제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축제 내부행사장 이동 편리성도 강화된다. 군은 축제 주무대와 발효소스도굴간 이동거리가 멀어 관광객이 불편하다는 여론에 따라 주무대와 발효소스도굴, 주무대와 장류체험관 등이 위치한 민속마을 상부를 연결하는 관광전용 전기차도 운영해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순창=이영일 기자